

# MUJINE

*Heritage*

10

OCTOBER 2014

*ON THE  
RED CARPET*

RETURN OF LIPSTICK

**UNVEIL THE CITY**

NINE BEAUTY  
ESSENTIALS

77개의 물건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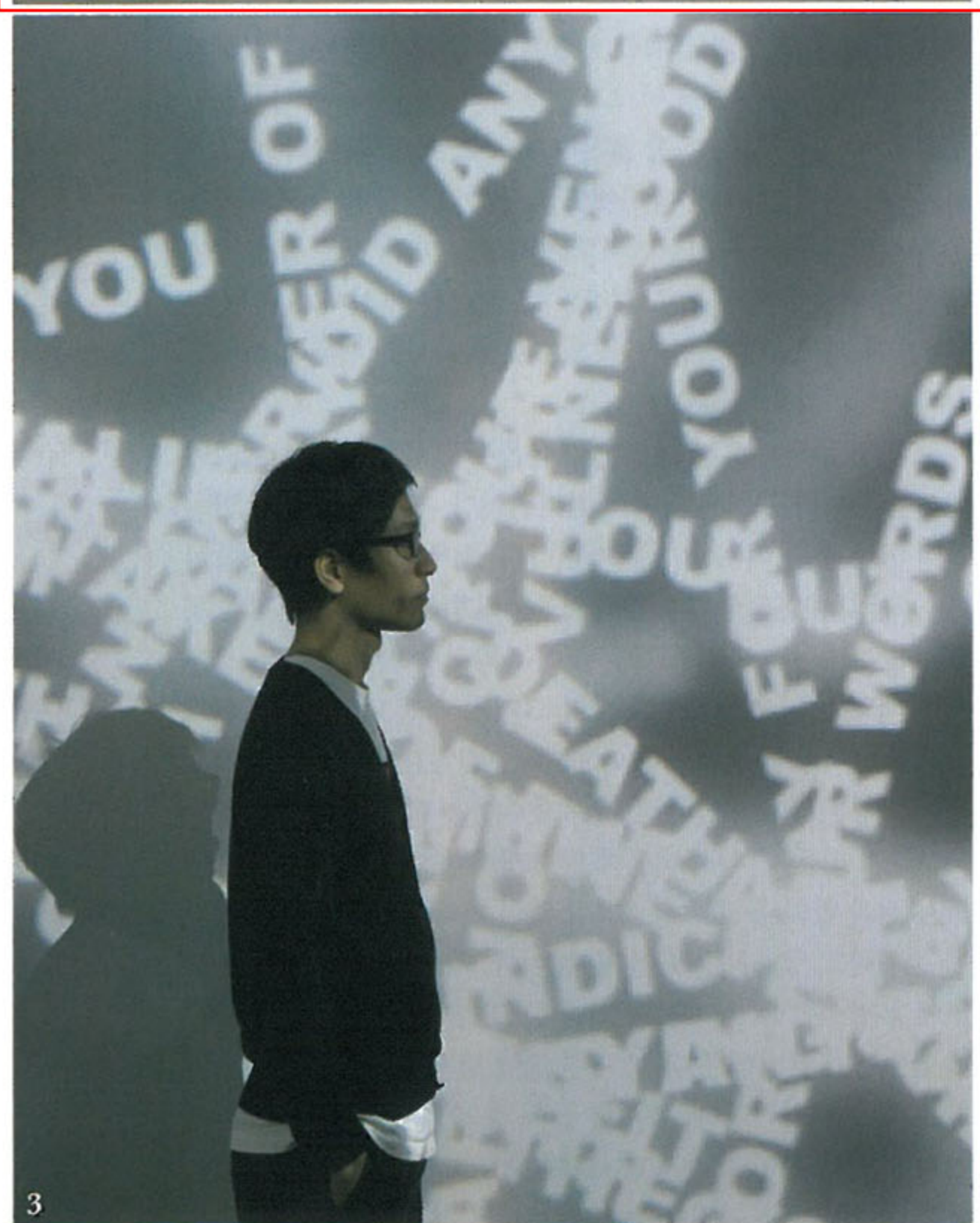
**TOD'S**  
MADE IN ITALY



물론 엠 플러스에서 할 일이 많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미술관이라는 기관에서 계속 일할 계획인가요? 기관의 큐레이터가 익사이팅하고 섹시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구조가 마냥 좋지는 않아요. 작가나 동료들이 너는 참 기관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면 반감이 들기도 하고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적응형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15년 이상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넘어서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0년, 25년까지 기관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식으로 활동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새로운 좋은 기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과거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국 미술의 세계화’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대내외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대 미술의 최전방에 계시니, 이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궁금합니다. 어제 저녁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K 아트’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경제 용어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국제 미술계에서 진행되어온 담론이나 마켓의 형성 과정을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었던 것이 확실해요. 게다가 이게 최근의 일도 아니고 최소 100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요즘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세계 미술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 작가들은 30대 후반에서 40~50대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바로 그 세대니까, 그분들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너레이션이 떠오른 데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미술사도, 문화사도 일직선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도약했다가 쇠약할 수도 있는데, 한국 영화가 1990년대 말에 팡 터진 것처럼 한국 미술은 지금이 그때죠. 중국 작가들을 말할 때, ‘중국의 현대 작가’로 통틀어 말할 수 있지만 한국 작가들은 각각이 달라서 통틀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고, 확실한 전략이 있고, 확실한 윤리성을 추구하죠. 앞서 언급한 세대의 한국 작가들은 이 균형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올해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양혜규, 이불 작가를 언급했습니다. 워낙 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협력해본 적이 있어서 언급했지만 큐레이터로서 윤리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름을 나열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테이스트 메이커로 비춰질 소지도 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본다면 그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김수자 선생님은 정말로 국제적이시죠. 제가 새내기 때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 서도호 선생님은 물론이고, 이번에 베니스 가시는 전준호, 문경원 작가, 런던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신미경 작가, 이번에 아트 선재에서 개인전을 하는 김성환 작가도 참 대단하죠. 이분들은 하나하나 성격이 다르고, 나쁜 의미로 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세요. 이분들과 연락하고 일을 도모해본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딱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발견되어야지가 아니라 같은 동료 관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자신감이고,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㉞



1 2018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홍콩 M+ 시각문화박물관’. 정도련은 이곳의 수석 큐레이터로 발탁됐다. 2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등 7인의 거장이 참여한 <단색화의 예술>전은 10월 19일까지 국제 갤러리에서 열린다. 3 개관 전에 이미, 활발히 전시를 기획 중인 홍콩 M+에서 기획한 ‘Tsang Kin-Wah’의 전시. 정도련의 큐레이팅으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 예정이다.